

## 시대와 다른 영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라 (수 14:6-15)

**존 웨슬리(1703. 6. 17-1891. 2. 29):** 88세 65년간(82세까지 지치거나 아프지 않음)

1738.5.14. 저녁 거듭남, 런던의 Fetterlane 모라비안 모임 이후 53년간(50년 일기)

1. 설교자: 2월 23(수): 마지막 설교 Leatherhead, 29(화) 임종

2. 저술가: “기독교 문고(Christian Library)”(50권), 성경주석, 설교집, 50년 일기

3. 행정가: 영국 감리교 목사 313명, 성도 72,000명

미국 감리교 목사 198명, 성도 60,000명 + 70,000(작고)

미.영 총계 목사 511명, 성도 132,000(+70,000 작고): 20만 성도

영국 교회: 470 Societies; 114 Circuits 300(전임 순회 목사); 약 2,000(성도 순회 설교자)

### 1. 그 시대의 대사수의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가졌다(민 13:7-9)

(민 14:24)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갓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수 15:15-19=삿 1:10-15)

(새번역)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쉬운말)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에게 충성했다

(ESV) because he has a different spirit and has followed me fully,

### 2.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wholeheartedly), 신뢰하였다

(10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 3. 그는 끝까지 충성하였다

(12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나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 4. 그는 오직 한 가지 사명에 집중하고 전념하였다

(10후-11절)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 새로운 피조물 미니스트리(New Creation Ministries): “새로운피조물tv”(유튜브)

AFC 교회 네트워크(지도 목사)

예수선교사관학교(교장): 태국, 네팔, 미국 선교

새로운 피조물 컨퍼런스(강사)

NCTC: 미국 유학생, 교포, 가정교회

NCCS: 다음 세대(최순애 이사장)

매주(유튜브 설교, 서울교회 1회, 매월(컨퍼런스), 매학기(강의), 매년(책 1권), 평생(멘토링)

우리는 서울의 모든 동과 대학에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개척한다

## 그리스도의 대사들 용인교회, 담임목사 이취임예배



오늘은 개척 후 32년간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를 섬긴 김진호 목사 은퇴 및 권혁구 목사 취임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용인 1,2부 예배는 김진호 목사가 인도합니다. 예배 전에 김진호 목사님의 시집 「읽으며 꿈꾸며 사랑하며」를 선물로 드립니다.

### ● 일시 : 1/16(주일) 오전 11시 (용인교회)

- ※ 김진호 최순애 목사는 새로운 피조물 미니스트리 대표로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 ※ 2022년부터 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유튜브 채널은 [새로운피조물 TV]로 새롭게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1/16(주일) 서울교회 예배 안내드립니다

- 오늘은 김진호 목사님의 이취임예배에 용인 현장 및 실시간 예배로 참석합니다.
- 오늘은 서울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현장예배는 없고, 1/23(다음 주)부터는 오전 11시에 현장예배를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서울교회 예배안내

일시 및 장소	주일 오전 11시 (서울교회 예배당)
설교	김진호 목사(매월 첫 주), 김병화 전도사(그 외)

## 2022년 선교헌금 작성서 안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교회를 향한 선교비전을 이루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도와 재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마감일 : 1/23(다음 주일)까지
- 제출 방법 : ① 대면예배 시 헌금함에 제출  
② 서울교회 홈페이지(afcseoul.kr) 배너를 통해 구글 설문으로 제출 바랍니다.

선교헌금 참여방법	작성하신 금액을 매월 헌금으로 참여
선교헌금기간	2022년 1월 ~ 12월 (총 12개월)

##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급 안내

- 2021년 헌금분에 대해 이메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이메일 (afcseoul153@gmail.com)
- ※ 재정부 문의 : 010-9191-1377(김웅열 집사)

## 온라인 헌금 계좌

- 은행명: 신한은행 ● 예금주: 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 계좌번호: 100-032-660001
- 입금자명: 이름+헌금종류 (예: 김사랑십일조, 김사랑선교 등)
- ※ 입금자 명에 이름이 없을 시 무명 처리 됩니다.

## JMA 졸업식 안내

- 일시 : 1/22(토) 오후 2시, 용인교회 5층 예배실
- 명단 : 고일선 김보영 김영은 신정민 이상훈 정선영 (총 6명)
- 졸업인원 : 정규반 25명, 온라인반 78명 (총 103명)
- ※ 영광스러운 졸업생 및 수료생들이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 새로운 피조물 “청년” 컨퍼런스

- 일시 및 장소 : 2/5(토) 오전 10시~저녁 5시 (용인교회)
- 강사 : 김진호 최순애 목사 부부 외
- 대상 : 청년들(JMA 졸업생, JMA에 관심 있으신 분)
- 신청방법 : 1/25(화)까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구글 설문 제출
- ※ 실시간 유튜브 채널 : 새로운피조물 TV

## LTG 성경읽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6	17	18	19	20	21	22
주일예배	에스겔 1-24장 (1회)					
23	24	25	26	27	28	29
주일예배	에스겔 25-48장 (1회)					
30	31					
주일예배	다니엘, 호세아 (1회)					

## 예수선교사관학교 18기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 (PC와 모바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정규 목요반 (1년 과정)	온라인반	
		수료반	졸업반
		1학기 과정 (1년에 2번 실행)	1년 과정
수업시간	9:30~16:30	온라인 인터넷 수강	
수업장소	AFC용인교회	홈페이지 ejma.co.kr	
모집대상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믿음의 말씀으로)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		
접수기간	1월 26일(수)까지		
지원방법	홈페이지(ejma.co.kr) 입학안내 ➡ 입학지원 게시판에서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 작성 및 제출		
입학전형	정규반	서류전형으로만 선발 (입학시험 없음)	
	온라인반		

- 온라인반 안내 드립니다.

- ① 1학기 수료과정 :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과목 수강, 과제와 시험 대신 코칭모임을 통한 지속적 영적 습관을 형성
  - ② 2학기 졸업과정 : 1학기 수강 이후 실제적인 과목을 통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과정
- \* 수료과정 이후 2학기 과목 & 추가 과목들은 단과 형식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 문의 : 031-8005-8482, http://ejma.co.kr(교무처 김진영 목사)

## 1월 예배당 청소일정

- 1/2그레이크스플, 1/9휴오스부부, 1/23휴오스자매, 1/30사랑의섬김
- ※ 청소구역 : 예배당(유아방), 202호, 여자화장실, 쓰레기 분리수거

## 가락동 예담교회

가락 시장 동쪽 성남 가는 길 건너 송파구 가락동 84번지 페인트 집 간판 단 상가 건물 3층 옥상 작은 십자가 철탑 아래엔 까치가 집을 지었다. 180세대 천막촌 옆 예배당 "선교하라고 복주신 예담교회." 2층 32평 1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30만원 교회 개척 실패하고 나간 자리 강대상이 있던 곳에 밥상을 펴고 둘러앉아 첫 주일예배를 드리니 다섯 살 된 딸이 지루해한다.

예배당 뒤쪽 막아 숙소와 부엌 만들고 전기장판 하나 깔고 세 식구가 사니 새벽 기도하기 좋고 성도들 상담하기도 좋았다. 출퇴근도 없고 차도 필요 없는 올인원 살림살이 사생활도 공생활도 없는 하나된 가족 공동체. 1년 반 지나도록 매일 새벽 기도, 수요 사도행전 강해 설교, 주일예배, 주일 저녁 예배. 지하 식당에 칸막이해 살던 집사님도 차고 주차장에 전기장판 깔고 살던 권사님도 불신 남편에게 핍박받던 젊은 여집사님도 가락동 사장님 부인 집사님도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고 주보 들고 나가 전도하고, 금요일 밤엔 청계산에 올라 두어 시간씩 부르짖었다.

천막 촌, 반 지하, 옥탑방, 아파트, 이 잡듯이 살살이 뒤져 전도하여 구원받은 영혼들. 옥탑방 살며 자살하려던 젊은 여자 성도님 구원받고 감사해 눈물 흘린 날, 새벽 가락 시장에서 리어카 끌고 낮에는 양지바른 곳에 리어카 놓고 새우잠 주무시던 할아버지 구원받고 감사하다고 황국화 화분 이층 오르는 계단마다 줄지어 놓은 날 드리시던 주일예배. 검은 내 머리도 무성한 반 곱슬 40대였는데 이제는 그 할아버지 나이에 대머리가 되어있다.

주일 날 함께 먹던 비빔밥은 어찌 그리 맛 있던지! 전기밥솥에 남은 밥 누렇게 되도록 먹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주일이 다가오고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즐거운 한 주 한 주 손뚱아 세어 보던 스무 명 남짓 귀한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 전도하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귀신도 떠나고 기도 받고 병도 나왔다. 눈물로 간증하고 찬양하던 성도들 이제는 얼굴만 기억나고 이름은 희미하다. 수많은 성도님들 오고 가고 왔다가 떠나갔어도 분당으로, 용인 구성으로, 예배당 가까이 살겠다고 건축해서 이사하며 삼십 이년을 함께 해 온 가락동 식구들이 있다.

아내가 TV 사 놓고 영어 회화 가르쳤던 아이들 미국으로 유학 가고, 어린 자녀들도 자라 결혼해 자녀 낳고 아파트도 하나씩 장만해 규모 있게 살고 있으니 감사하다. 교회도 예배당 지어 꿈꾸던 대로 북카페, 개인 기도실, 어린이 도서관 마련하고 성도들 교회 따라 이사해 자리 잡고 자녀들 함께 기르며 사니 부러워할 것도 전혀 없는 감사가 넘친 세월이었다.

## 우리교회 장로님

30대에 만나 30년이 넘도록 교회를 섬기신 우리 장로님 부부  
30명 남짓 모이던 개척 교회 오셔서  
30년 더 함께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오셔서 오찬을 함께 했다.

매주 삼계탕 삶아 고교 친구들 초청해 놓고 우리 부부와 함께  
일 년 동안 복음을 나누던 장로님 맥 저녁 모임  
수많은 특별 기도회, 말씀 집회, 행사 때마다 안내하고 섬기던 모습  
더 큰 예배당 필요해 옮길 때마다 늘 내 집을 짓듯 드리던 헌금  
성도들 늘어나 많아진 결혼식과 장례식마다,  
축의금, 부조금 들고 찾아가 위로하고, 축복하고  
오고 간 수 많은 성도들을 가슴에 품던 넓은 마음

하늘 아래 많은 사람들 수 없이 만나고 헤어지며 살면서  
섬기고 섬김 받으며 친구가 되었다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부도 이혼하고 부모 유산 놓고 형제끼리도 싸우는 세상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교회를 사랑하여  
충성하며 섬기는 데 청춘과 재물을 함께 다 부으셨다.

## 서시

돌아보니 주님을 따르기 보다 교회란 짐을 지고 걸었네요.  
내 힘에 부치는 무거운 짐 지고도 쉴 줄 모르고 달렸네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잎사귀 무성한 다른 나무들 쳐다보며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온갖 열심을 다 냈었네요.  
겨자씨처럼 심어 놓으면 자고 깨는 사이 절로 자란다고 하  
셨는데

주보 들고 방문 전도, 봄 가을엔 특별 새벽 기도, 부흥 집회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 밤엔 청계산 기슭에 올라 부르짖으  
며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라고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십 년이 지났더군요.  
다른 사람 흉내 내니 하는 일 서툰데 열매 만족스럽지 못하니  
자책하며 새로운 일 시도할 때 주신 열매가 어찌 감사했던지요.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교회를 내가 힘써 자라게 하려니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잔잔한 만족감 넘치는 기쁨 대신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라는 말씀마저  
계명처럼 그렇게 애쓰며 살려고 한 것이 부끄럽네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달리다 보면 달리는 재미가 있듯이  
수험생처럼 토요일 잠도 설치며 한 주씩 쉬지 않고 달렸지요.  
성탄절, 송구영신, 부활절, 추수 감사, 예배로 보낸 서른두 해  
맨몸으로 저수지에서 미역 감던 어린 시절처럼 살 수는 없어도  
지금까지 입던 옷을 벗어 두고 새 옷 갈아입고 싶습니다.

주일 설교 부담감 없이 성경도 읽고  
많은 손님 식사 준비 걱정하던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만 쳐다볼 수 있겠지요.  
아기 위해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수유 중인 엄마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받는 신부로 살 수 있겠지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사랑이 부족해도 진리를 말해야 했던 마음도 가벼워지고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열두 제자만 가까이 데리고 다니신 주님처럼  
몇 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잘 놀기만 해도 사랑받는 세 살배기 나의 손주처럼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이제야 좀 알겠습니다.  
보는 이 없고 은혜받았다고 고마워하는 이 없어도  
심겨진 그 자리에서 때를 따라 피고 지는 들꽃처럼  
제가 심긴 그곳에서 한 송이 꽃 피우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그날이 올 때까지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눈물 많은 사람으로  
주님의 향기를 바람에 실어 보내며 서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에게서만 나는 그런 향기를

2021년 12월 31일

김진호